

월요광장

내 맘 같지 않아도 괜찮아



문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의나 워크숍을 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 입니까?"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 그리고 배우자, 애인, 친구, 직장상사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하나같이 가까운 이들이다. 그 질문을 듣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이들도 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당신이 크게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 입니까?" 사람들은 좀처럼 대답이 없다. 단지 옆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만 있는 것이다. 종이에 쓰고 해도 잘 떠올리지 못한다. 대부분 작은 실망이나 상처는 됐겠지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

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마치 도박판과 비슷하다. 돈을 잃은 사람만 있고, 뺏다는 사람이 없다.

정신과 전공 의사로 지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인간은 인간에게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와 의미 없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깊게 베이거나 구겨지고 만다. 가까운 사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인간이 뺏속까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중적이다. 우리는 사람 덕분에 기쁘고 행복하지만, 반대로 사람 때문에 쉽게 고통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관계에서 상처받기 쉽다는 말은 거꾸로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라는 말과 같다. 당신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이기적이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를 줄까? 그것은 상대와 가까워지면 자

아의 경계인 바운더리가 흐트러지고 상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랑을 듬근 원에 비유하면,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원과 원이 겹쳐지는 것이다. 원이 겹쳐지면서 서로 연결되고 공유되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나'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지게 된다. 그렇기에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나의 일부처럼 여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상대가 자기에게만 관심을 쏟아 주기를 바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기대한 대로 상대가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즉,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개별적인 인간'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고 만다. 상대가 상대의 모습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하기보다 나의 기대대로 존재하기를 바라게 된다. 상대의 타자성(他者性)을 부정하고 나의 일부처럼 여기게 되는 '관계의 소유욕'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반복된 '애착 손상'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애착 갈망'이 커져나 살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많다. 관계의 소유욕은 커

진다. 내적인 결핍을 관계에서 채우려고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 결국 관계의 소유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계는 상처로 얼룩지고 만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건강한 이들과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 존재이며 실제로도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은 이러한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상대가 내 마음 같아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이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안다. 그리고 다시 상대가 상대의 모습대로 존재하도록 허락한다.

몇 주 전에 공을 들여 써 온 인간관계에 대한 새 책이 나왔다. 나는 가장 먼저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아내의 평을 듣고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잘 읽지 않았다. 몇 번 재촉을 했다. 아내는 대뜸 "그만 좀 봐요"라고 쏘아붙였다. 실망이 컸다. 나는 일평이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 맘 같지 않아도 괜찮아.' 물론 괜찮지 않았다. 갈 길이 멀다. 언제쯤 내 맘 같지 않아도 괜찮아질까?

법조칼럼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기를



송창운 변호사

피고인은 무죄. 재판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면서 집행유예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마음 속으로 이 법정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고, 자기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범정은 유죄-무죄의 증거를 모아 유무죄를 인으로 판단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부디 당신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 방법으로 나를 심판해 주시기를'이라는 자막으로 끝난다.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그때나 나는 하지 않았다.' 중 일부 내용이다.

1961년 8월 22일 밤 9시 영국의 한 남녀가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다, 복면을

쓴 강도를 만난다. 남녀는 4시간이 넘게 끌려다니다가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남성은 범인이 쓴 총에 사망한다. 여성은 목숨을 잃은 뒤 여러 발의 총알을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다.

용의자는 사건 두 달 뒤쯤 체포되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총과 탄창이 발견되었으나 지문은 없었다. 경찰은 범인 식별 절차에서 용의자들에게 한 마디씩을 하게 하였고, 여성은 제임스 핸래티라는 이름의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핸래티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진술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어려웠고, 그에게 절도 전과 등 자잘한 전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폭력 전과는 없었다.

지문이나 디엔에이 등 법의학적인 증거도 없었다. 피해 여성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핸래티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 기각 판결 6주 뒤 교수형을 당했다. 이후 40년 동안 영국은 이 사건의 판결이 옳은가하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2001년 현대의 최첨단 과학 기술의 도움을 얻어 당시 증거를 속속 속해 남아 있던 DNA와 핸래티의 머뭇을 얻어 채취한 DNA가 일치하자 당시 판결이 옳

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나는 영화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 같은 이야기다. 한 이야기는 무죄인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이야기는 결국 판결이 옳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나 40년 동안 진위 불명의 상태가 계속되어, 혼란은 계속되었다. 두 이야기 모두 다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형사 소송법이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言)도 모두 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열 명의 범인도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법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재승 교수는 '열 두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인간의 저지르는 오류를 소개한다.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오류'가 제1종 오류이고, 이와 달리 '맞는 걸 아니라고 하거나, 있는 데도 없다고 판정하는 오류'가 2종 오류이다.

그런데 제2종 오류가 우리 삶에 더 치

명적이라고 한다. 천적이나 위협이 있는 데도 없다고 판단하면 생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제2종 오류에 훨씬 민감하다고 한다.

이를 판결에 대입하면 실제로는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제2종 오류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혐의가 무거울수록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혐의에 비례해 입증의 정도를 완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판사들은 형사 소송법의 대원칙과 인간의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강제 추행죄로 피고인이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이른바 곰탕집 사건으로 말도 많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저지를 지도 모르는 죄를 예측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상상속의 일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뇌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뇌를 직접 조사해 그가 가진 기억을 추출하여 유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온다면 열 명의 범인을 놓치지 않고,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서 빨리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社說

행정 편의보다 기업의 불편 해소가 먼저다

바다를 매워 조성한 울촌 산업단지의 경계를 놓고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가 참여하게 다루면서 애꿎은 입주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 등이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업들의 혼란만 깊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울촌 제1산단은 지난 1994년부터 여수시 울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를 매립해 910만 8000㎡(약 276만 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자체 별 관할 구역은 여수 26%, 순천 42.5%, 광양 31.5%다. 하지만 행정 구역 구분이 필지별이 아니라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15필지의 주소지가 이들 3개 시의 행정 구역과 겹치게 됐다. 이로 인해 A공장의 부지는 여수·광양·순천 등 세 곳에 걸쳐 있으며, 두 곳으로 나뉜 업체도 아홉 개나 된다.

이들 기업은 지방 소득세를 내려면 2~3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주민세

납부와 지적 측량도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나 사건·사고 땀 소방과 경찰의 관할이 불분명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도 크다. 기업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2011년 3개 시의 부시장들이 조정안을 만들고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자체들의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를 위한 우려 탓이었다.

급기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최근 지자체 관할 구역 경제 변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지자체 간 자율 조정이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다.

기업들을 유지해 놓고 자치단체들이 행정의 이해관계에 얽매어 불성사나운 경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나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선거 제도 개혁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 제도 개혁 과제를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지금의 선거 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의 교집합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들은 평균 인구 9만 명당 국회의원 1명이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인구 17만 명당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권을 없애고 의석은 늘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의원들 간에 얽

힌 이해관계와 부정적인 국민 여론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이 헌정사 70년의 최대 개혁 과제'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말대로 선거 제도 개편은 정치개혁의 으뜸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현행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분열과 적대의 정치를 제도화하며, 소수 정당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 대표성에 심대한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당당한 선거 제도 개혁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디지털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거의 모든 승객이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각종 모임에 가도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폰이나 SNS 속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거리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뉴스의 경우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무한대로 제공되는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나?'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적거리기 일쑤다.

개인에 관한 무수하고 방대한 정보-빅데이터가 특정 정보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는 '디지털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디지털 독재가 가져 올 저질 뉴스를 만들어 내도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압도적인 정보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뉴스, 자신의 의견을 강화해 주는 뉴스만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잘못된 믿음은 더욱 공고해지곤 한다.

디지털 독재

각종 선거 과정에서 실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온갖 재미있고 신기한 뉴스를 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보는 사람의 관심이나 주의(注意)'를 대가로 가져간다. '공짜 무언가 얻는 경우 실제로는 당신이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보화 시대의 뉴스 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터넷을 통해 포털이나 기관은 질 낮은 뉴스 등을 제공하는대신, 사람들의 관심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자아마저 노출해 놓고 있다. 이미 지구촌에선

해 제공되는 뉴스들은 실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온갖 재미있고 신기한 뉴스를 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보는 사람의 관심이나 주의(注意)'를 대가로 가져간다. '공짜 무언가 얻는 경우 실제로는 당신이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보화 시대의 뉴스 시장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인터넷을 통해 포털이나 기관은 질 낮은 뉴스 등을 제공하는대신, 사람들의 관심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공짜로 가져가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자아마저 노출해 놓고 있다. 이미 지구촌에선

기고

훈수가 필요하다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1990년대 중반 이후 채택 근무가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IT 인프라의 발달로 업무 수행에 사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알다시피 채택 근무를 도입했다. 특히 IBM은 '통근자 교통 지수'라는 지표까지 개발할 정도로 채택 근무제를 신봉하고 확산시켰던 원조 격이었다. 그랬던 IBM이 지난해 이맘때쯤 채택 근무제를 전격 폐지하기에 이른다.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당시 IBM은 실적 부진 및 수익성 악화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채택 근무 폐지 이유는 집에

서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사 결정 방식이 창의성 발휘와 성과 창출에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현재 글로벌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대부분의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일반의 예상과 다르게 채택 근무보다는 사무실 근무를 선호하는 전략과 유사하다.

글로벌 금융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은 천문학적 연봉에 걸맞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만큼 개인적인 역량이 매우 우수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수십명의 딜러들이 개인별 칸막이도 없는 탁 트인 딜링룸에서 같이 근무한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민주적이며 집단적인 의사 결정과 협업의 장점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광주에서는 이런 협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 바로 며칠 전에 발표되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결정 과정이다. 2002년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니 자그만치 16년 동안의 찬반 논란 끝에 시민 참여단이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만큼 결정하기가 난한 사항이었을 것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2호선 건설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였지만 경제성과 사업성이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1호선의 수송 분담률이 2.7%에 불과하고 개통 이후 10년간 광주시가 보전해준 지하철 적자가 3000억이 넘으면서 2호선 건설에 대한 백가쟁명식 찬반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물론 공론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만 모여 건설 여부를 결정했다더라면 좀 더 효율적이긴 단 기간에 의사 결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민주화 상징 도시인 '의향'의 명성에 걸맞게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힘들지만 협업과 소통이 필수적인 공론화의 산고를 견뎌낸 것이다. 산고의 고통이 컸던 만큼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들도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공

론화 과정이 자랑스럽다.

동네 아저씨들의 바둑판에는 항상 훈수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훈수꾼 개개인의 바둑 실력은 대체로 하수인 경우가 많다. 상수는 사람의 공정성을 감안해 훈수를 잘 하지 않으니가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하수들이지만 여럿이 모여 훈수를 하다 보면 실력이 결맞지 않게 뜻밖의 묘수가 등장한다. 그 묘수는 바둑판의 승패를 역전시킬 정도로 강력하여 경기를 포기할 뻔 하던 약자에게 희망과 승리를 선사한다. 물론 훈수가 공정성을 해친다는 까탈스러운 지적도 있겠으나 '동네 바둑'이라는 아마추어리즘에 충실하다 보면 별 문제가 될 것도 없다. 더구나 자신의 훈수를 발견한 훈수꾼들 개개인의 실력이 변변치 않은 하수에 불과하다면 하수들의 집단 지성은 더욱 소중하게 평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광주에는 앞으로도 이런 훈수가 필요한 곳이 많다. '광주형 일자리'가 그렇고 '한전 공대' 설립 과정에서 소통과 협업 끝에 신의 훈수를 발견해 내는 훈수꾼들의 집단 지성이 절실할 필요가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